

‘올드 프로게이머’들도 다시 돌아온다

한국e스포츠에 새 바람 분다

홍진호·기욤 패트리·박태민 등 OB들
은게임넷 하스톤 인비테셔널 참가
선수들 심리 경쟁 등 새 대전 방식 눈길
도타2·월드 오브 탱크 등 리그 다양화

e스포츠에 새바람이 불까.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e스포츠에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종목 다양화와 함께 새로운 대전 방식 등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무엇보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경쟁 구도를 도입한 대회가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공개서비스를 진행 중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최초의 무료(부분 유료화) 카드 수집 게임(CCG) ‘하스톤: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을 종목으로 한 대회다. CJ E&M 게임채널 은게임넷은 최근 신규 프로그램 ‘하스톤 인비테셔널’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6일 첫 방송을 시작한다. ‘하스톤 인비테셔널’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e스포츠 대회와는 전혀 다른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 대전 방식은 흔히 볼 수 있는 팀전이다. 하지만 가장 높은 등급의



CJ E&M 게임채널 은게임넷이 신규 프로그램 하스톤 인비테셔널을 개최한다. 기존 e스포츠대회와 다른 팀전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게임팬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하스톤 인비테셔널 참가선수들. 사진제공 | 은게임넷

카드를 뽑은 두 명의 선수가 팀장이 되고, 팀원을 번갈아가며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선 다르다. 더욱이 선수들이 부스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며 게임을 한다. 때문에 다양한 팀 단위 전략구사는 물론, 상대를 도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게임 화면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수들의 행동을 보면서 심리 경쟁까지 즐길 수 있다. 출전 선수들의 면면도 재미를 더한다. 최

근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른 홍진호를 비롯해 전 프로게이머 기욤 패트리와 박태민 등이 참가한다. 이밖에 ‘드루 여신’으로 불린 루메이왕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참가해 보는 재미를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종목 다양화 속도 ‘하스톤’ 뿐 아니다. 다양한 종목의 e스포츠 대회가 눈에 띈다. 먼저 넥슨은 ‘카트라이더’와 ‘피파온라

인3’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새 인기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타2’의 정규 리그 ‘코리아 도타2 리그(KDL)’도 막을 올렸다. 특히 넥슨은 e스포츠 경기장 ‘넥슨 아레나’를 마련해 e스포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월드 오브 탱크’도 주목받는 e스포츠 종목. 위계이기는 ‘월드 오브 탱크 코리아 리그’(WTKL)를 진행한다. 최근 열린 플레이오프전 ‘NOA’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NOA는 WTKL 서킷 포인트 1위로 출전권을 확보한 ‘ARETE’와 함께 4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WGL 그랜드 파이널’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기존 인기 종목들도 새 변화를 맞고 있다.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는 탐리그인 ‘SKT LTE-A LoL 마스터즈 2014’를 지난달 13일 개막했다. 아울러 세계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월드컵)’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 e스포츠의 시작을 알린 ‘스타크래프트’도 인기를 회복하고 있다. ‘스타크래프트2:군단의 심장’으로 변경되면서 개인리그인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WCS)와 함께 국내 최대 탐리그인 ‘프로리그’가 인기를 더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패션 라푸마측에 경고서함을 보내 मामले 일 것으로 보인다. 살로몬측은 문제가 된 ‘센스 만트라’ 외에 ‘센스 프로(왼쪽)의 경우 디자인 도용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센스 프로’와 라푸마의 ‘프렌치 익스프레스 1.0’이 외형은 물론 색상과 요소배치까지 유사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 | 살로몬

라푸마, 살로몬 표절 논란

살로몬 프랑스 본사 ‘디자인 도용’ 경고서함 발송
해당 트레이닝 러닝화 제작·판매·유통 중지 등 요청

LG패션 ‘라푸마’가 살로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 살로몬 프랑스 본사가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LG패션 라푸마측에 경고서함을 발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살로몬 프랑스 본사는 ‘라푸마’의 ‘프렌치 익스프레스 1.0’(French Express 1.0)이 자사의 트레이닝 러닝화 ‘센스 만트라’(Sense Mantra)의 디자인 국제 의장특허권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0일 경고서함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살로몬은 서한을 통해 LG패션측에 라푸마의 해당 상품이 침해한 국제 디자인 특허권을 설명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제작, 판매 및 유통 등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살로몬, ‘총 5개 부분에서 라푸마가 디자인 도용했다’ 살로몬이 주장하는 라푸마의 디자인 도용은 총 5개 부분이다. 첫째 신발 측면에서 지그재그로 뻗어나간 선. 살로몬은 “이 선은 살로몬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라푸마가 그대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신발 바깥쪽 뒷부분부터 앞쪽까지 아래쪽으로 향하는 로고 라인 역시 ‘판박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신발 안쪽의 스트림, 네 번째는 신발 끈을 조일 수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신발 끈 조임장치이다. 마지막으로 살로몬 측은 “밑창을 보면 발바닥 윤곽선을 연장시키며 세로로 평행하게 이어지는 밑창의 두 선이 마치 한 회사의 제품인 양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살로몬 프랑스 본사는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 협상인 베른협약에 의거해 자사에서 개발한 신발 및 제품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자인 도용에 관련해 라푸마의 ‘프렌치 익스프레스 1.0’의 판매가가 살로몬 ‘센스 만트라’보다 약 40% 이상 저렴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불공정 경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살로몬 본사의 지적 재산권 대변인은 “1992년부터 세계 최초로 트레이닝화를 선보인 살로몬은 단지 미적인 부분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디자인을 선보인다”며 “이러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살로몬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을 비롯해 살로몬의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에서 ‘프렌치 익스프레스 1.0’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제 디자인 특허 침해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패션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살로몬측에 전달할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내부 검토 및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ranbi361



봄채소를 활용한 봄 향기가 가득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밥상을 똑딱 차릴 수 있다. 청정원, 초록마을, 샘표 등 식품업체들은 봄이 제철인 달래, 미나리와 새싹 등을 재료로 한 간편한 먹을거리와 양념을 내놴. 매콤한 소스를 넣은 쭈꾸미도 추천요리다. 스포츠동아DB

성큼 다가온 봄...싱그러운 봄나물 제대로 즐기기

봄채소 듬뿍 넣고 된장만 풀면 밥 한공기 똑딱 쭈꾸미는 봄이 제철! 딸기 샐러드도 아삭아삭

겨우내 잃어버린 입맛을 깨우고 봄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고 싶다면 봄채소를 활용한 계절 밥상을 차려보는 것은 어떨까. 시중에 출시된 다양한 간편 제품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봄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봄채소 활용한 된장찌개

‘봄’하면 떠오르는 제철 재료는 달래와 미나리다. 향긋한 봄채소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신선한 냉장 타입의 청정원 ‘우렁 된장찌개’(사진)는 된장을 기본으로 국산 우렁과 각종 양념을 넣어 간편하게 찌개를 끓일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두부와 호박, 봄채소 등 주재료에 이 제품만 넣고 끓이면, 누구나 음식 솜씨 걱정없이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다. 된장찌개보다 구수하고 삼삼한 달래 된장국이 좋다면 종가집 ‘데이즈 순한국된장 양념’을 이용하면 간편하다.

●새싹 채소 활용한 비빔밥

파릇파릇한 새싹채소도 싱그러운 봄내음을 그대로 전해준다. 다른 특별한 재료없이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다양한 새싹채소와 고추장 소스를 넣고 비벼먹는 것으로도 봄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초록마을 ‘무농약새싹 비빔밥’은 브로콜리, 유채, 적양배추, 무순, 배추 등 다양한 채소를 한꺼번에 담아 간편하

게 새싹비빔밥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에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간편하게 즐기는 쭈꾸미 볶음

쭈꾸미도 봄이 제철이다. 볶음요리의 경우 맛있는 양념장이 생면, 샘표 ‘무교동 오징어 낙지볶음소스’는 화끈하게 매운 맛으로 유명한 무교동낙지볶음의 맛을 담은 제품이다. 잘 손질한 쭈꾸미와 함께 볶아주면 맛있게 매콤한 쭈꾸미 볶음이 완성된다. 살짝 데친 쭈꾸미를 넣은 쭈꾸미 떡볶이도 별미다. 풀무원 ‘찬마루 매콤떡볶이양념소스’, 해찬들 ‘매콤달콤 떡볶이양념장’ 등을 활용하면 맛있는 쭈꾸미 떡볶이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상큼하게 즐기는 딸기 샐러드

봄 하면 딸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샐러드 재료로 활용하면 보기에도 좋고 맛도 한층 더 풍성해진다. 사과, 바나나, 키위 등 다른 과일들과 함께 과일샐러드를 만들어도 좋고 양상추, 루콜라, 치커리 등 각종 채소 위에 딸기를 토핑해도 잘 어울린다. 드레싱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 상큼한 청정원 ‘스트로베리 드레싱소스’(사진), 오투기 ‘딸기요거트 드레싱’, 풀무원 ‘셰프메이스트 허니요거트드레싱’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경제 브리핑

삼성전자 보급형 ‘갤럭시노트3 네오’ 출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3 네오’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갤럭시노트3’의 기능을 그대로 지원하면서 합리적 가격을 갖춘 스마트폰이다. 5.5인치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2.3GHz z 쿼드 코어 프로세서, 2GB 램, 3100mAh 배터리, 800만 화소 카메라를 달았다. ‘마이 매거진’ 기능을 지원해 뉴스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메일 등의 콘텐츠를 매거진 스타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멀티 윈도우 기능도 지원한다. S펜의 버튼을 눌러 화면에 가져가면 5가지 주요 기능을 한 번에 실행시킬 수 있는 ‘에어 커맨드’ 기능은 물론

‘액션 메모’, ‘S파인더’ 등 편의기능도 지원한다.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79만9700원이다. 삼성전자는 4월까지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해당 제품의 액세서리를 2만 5000원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CJ헬로비전, 새로운 청소년 LTE 요금제

CJ헬로비전은 새 학기를 맞아 이동통신서비스 헬로모바일에 ‘조건없는 유심(USIM) LTE 청소년 월’ 요금제를 출시했다. ‘월’은 음성과 영상, 데이터 사용 시 차감되는 청소년 요금제의 공통 단위를 말한다. 새롭게 출시된 요금제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자와 데이터 혜택을 강화했으며 약정 없이 기본요

금을 50% 할인해주는 것이 특징. 예를 들어 기본료 1만7000원을 내면 기본 3만4000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식이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의 유심만 새로 구입하면 가입할 수 있다. 요금제는 ‘34’와 ‘42’ 두 가지로 구성됐다. 문자메시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이 동일하게 제공된다. 데이터는 각각 750MB, 1.5GB다. 기본 지급되는 월예선 음성과 영상 통화, 데이터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무료 데이터를 다 소진한 뒤 차감되는 요금은 1MB당 20.48원이다. 음성이나 영상통화 시에는 초당 2.5원, 문자는 1건당 15원, MMS는 200원이 든다. 청소년 요금제는 가입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일 경우 헬로모바일 대리점과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스타벅스, 녹색문화운동 서울시장 표창장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이석구 대표이사)가 지난 2월 28일 시민 녹색문화운동인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에 참여해 도시녹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개인부문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3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서울광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커피 찌꺼기 재활용을 권장하는 ‘서울, 꽃으로 피다’ 공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탄소 발자국(이산화탄소 발생을 양으로 표시한 것)을 줄이고 꽃과 나무를 살리자는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이석구 대표이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삼삼데이’...삼겹살 어때요?

(3월 3일)
2월14일은 발렌타인데이, 3월14일은 화이트데이, 그렇다면 3월3일은? 3월3일은 ‘삼삼데이’다. 지난 2003년 축협이 양돈 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3’이 겹치는 3월3일을 삼삼데이를 먹는 ‘삼삼데이’로 정했다.

매년 삼삼데이가 되면 전국에서 돼지고기 파티가 열린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전국의 육류 판매점들이 할인판촉 행사를 여는가 하면 기업들도 돼지고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름은 ‘삼삼데이’지만 삼겹살뿐만 아니라 목살 등 다른 부위의 돼지고기도 먹자는 분위기를 띄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삼삼데이’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성북구 삼정각에서 ‘2014 한돈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사진)을 개최했다. 한돈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부위별 소비촉진을 위해서다. 위촉식에서는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 배화여대 김정은 교수 등 의학, 요리·영양, 헬스·건강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5명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명예홍보대사들은 대내외적으로 한돈을 알리고 한돈의 균형 있는 부위별 소비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병규 위원장은 “거대 농업국가와의 FTA 협상진행, 경기하락 등으로 한돈 농가가 어려움을 처해있다”며 “명예홍보대사들이 삼삼데이를 맞아 한돈농가에 힘을 실어 주고 국산 돼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 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